



‘바다 이정표’
벗삼는
낭만여행



등대가 있는 바닷가 풍경은 낭만적이다. 그것이 언덕 꼭대기든, 방파제 끝자락이든 상관없다. 등대가 있는 풍경은 고스란히 한 폭의 그림이 되고 낭만적인 이야기가 된다. 흘러간 시간과 사건을 지켜보며 지금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남겨진 우리 땅의 등대들을 찾아가 보자.
글 임동근 기자 · 사진 임귀주 기자



희망의 불빛을 밝히다

인천 앞바다 팔미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을 밝힌 등대가 서 있다. 하얀 등대는 113년간 묵묵히 서서 파란만장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지켜왔다. 인천상륙작전의 신호탄이 됐던 불빛은 바로 이곳에서 밝혀졌다.



1950년 9월 14일 오후 7시. “15일 0시 팔미도등대에 불을 밝혀라”는 더글러스 맥아더 연합군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졌다. 미군 3명과 국군 3명으로 구성된 켈로부대(KLO, 대북첩보부대) 특공대는 팔미도에서 북한군의 저항에 맞닥뜨렸다. 한참의 교전 끝에 점령한 등대. 하지만 점등에 필요한 장치에 나사못이 빠져 있었다. 낭패였다. 전쟁의 승패가 경각을 다투는 시각. 작전 개시 시각은 이미 지났다. 철혈 같은 어둠 속에 엎드려 있던 국군의 손에 나사못 하나가 잡혔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1시 45분 등대에 불이 밝혀졌다.

맥아더 사령관은 팔미도의 불빛을 확인하고 작전 개시 명령을 내렸고, 오전 6시에 연합군 함대 261척은 인천 탈환을 위해 포성을 울리며 육지로 향했다. 연합군은 인천상륙작전(작전명 ‘크로마이트’)으로 국토 대부분을 빼앗긴 최악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다.

1903년 6월 일제에 의해 완공돼 오욕과 고통의 시간을 지켜본 팔미도등대는 이렇듯 한국전쟁에서 전세를 바꾸는 승리의 불빛을 내쏘았다.

평온한 해변 품은 초록빛 섬

금붕어가 배를 삼키는 듯한 모양의 유람선이 인천 연안부두를 떠났다. 유람선은 천천히 수면을 미끄러지며 서쪽 바다 한가운데로 향한다. 유람선은 대도시 항구와 고층 빌딩이 즐비한 풍경을 벗어나 바다 위에 유려한 곡선을 굽고 서 있는 가다란 인천대교 아래를 통과한다.

3층 전망대로 오르지 드넓은 바다 풍경이 세찬 바람과 함께 선선히 전해진다. 머리 위로는 항구에서부터 쫓아온 듯한 갈매기들이 앞서가니 뒤서가니 날갯짓을 한다. 승객들은 넉죽넉죽 과자를 받아먹는 갈매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한다. 이내 뱃머리 앞으로 머리에 하얀 등대를 인 조그만 섬 ‘팔미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그만 선착장이 있고, 초록빛 싱그러움 섬에는 평온해 보이는 해변이 군데군데 형성돼 있다.



시원한 풍경 펼쳐지는 새 등대

드디어 팔미도의 꼭대기인 해발 71m 지점에서 등대 두 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앞에 있는 높이 7.9m의 등대가 바로 국내 최초의 근대식 등대다. 영욕의 역사를 지켜본 등대는 불을 밝힌 지 100년 만인 지난 2003년 12월 훨씬 크고 첨단화된 새 등대에 임무를 넘겼다.

높이 26m의 새 등대는 원통형 기둥 상단에 비행접시 모양으로 설계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대형 회전식 등명기로 최장 50km까지 뱃길을 비추고 있다. 위성항법정보시스템(GDPS) 기준국과 첨단시설을 갖춰 기상과 해양 관측도 하고 있다.

2층에서는 인천상륙작전 때 팔미도 등대 탈환 과정을 디오라마로 볼 수 있다. 등대를 향해가는 켈로부대원들의 모습과 점등 후 태극기를 흔드는 장면, 의자에 앉아 점등이 되기를 기다리는 맥아더 사령관 등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떠올린다. 3층에는 국내외 등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등대도서관이 마련돼 있다.

전망대에 오르면 바다 건너 주변 풍광이 사방으로 펼쳐진다. 가까이에는 인천대교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날씨가 좋으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무의도, 영흥도와 자월도, 고층빌딩 즐비한 송도국제도시도 볼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광경도 감상할 수 있다.

팔미도 여행은 숲 속 트레킹으로 마감한다. 등대 뒤편으로 계단을 내려가면 들레길이 조성돼 있다.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쉬엄쉬엄 울창한 숲길을 거닐다 보면 어느덧 선착장에 닿는다.



여행 정보

팔미도 유람선은 평일 1회, 주말과 성수기 3회 운항한다. 연안부두에서 팔미도까지는 50분이 걸린다. 팔미도에서는 1시간 정도를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둘러봐야 한다. 팔미도에서 좀 더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면 주말이나 성수기를 이용해 미리 예약해야 한다. 요금은 성인 2만2천원, 청소년 1만8천원, 어린이 1만5천원이다. 연장 체류 시에는 5천원을 추가해야 한다. 문의 ☎ 032-885-0001

일제가 세운 최초의 근대식 등대

인천항에서 15.7km 떨어져 있는 '팔미도'(八尾島)는 섬의 생김새가 여덟 팔(八) 자처럼 가운데는 높고 양쪽으로 경사져 내려갔다는 데서 비롯됐다. 둥그런 본섬과 조그만 섬 두 개가 사도로 이어져 있어 목을 길게 뻗 거북이처럼 보이기도 한다.

팔미도는 항구도시 인천의 길목이자 영종도와 대부도를 좌우에 끼고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개항 이후 열강의 배가 자주 드나들었던 인천 앞바다에서 사고가 빈발하자 일제는 등대 건설을 증용했고, 1903년 6월 1일 최적의 장소인 팔미도에 국내 최초의 근대식 등대가 세워졌다.

유람선이 섬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등대를 향해 오르기 시작한다. 탐방로 초입에는 등대역 사관이 자리하고 있다. 역사관 2층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을 엿볼 수 있다.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서와 켈로부대원, 인천상륙작전 상황이 영상으로 펼쳐진다. 인천 지역 등대를 시대 순으로 배열한 계단을 오르면 인천 개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팔미도등대 건립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천년의 빛' 조형물을 지나면 하얗고 조그만 옛 등대 사무실이 나타난다. 내부는 '등대원의 하루'를 주제로 1960~1970년대 사무실 풍경이 재현돼 있다. 인근 야외문화공간에서는 등대 전등(등명기)의 변천사를 엿보고 팔미도 탈환 당시 사용됐다는 해안포도 볼 수 있다.



1 관광객이 팔미도 유람선에서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고 있다. 2 팔미도 유람선 승선권. 3 팔미도 등대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이다. 4 팔미도 등대 탈환 과정을 주제로 하는 디오라마. 5 팔미도 등대 100주년 기념 상징물. 6 옛 등대 사무실.

부산 끝자락에서 맛보는 평온함

가덕도는 부산 최남단에 길쭉하게 자리한 섬이다. 남쪽 끝자락의 가파른 절벽 위에는 등불을 처음 켜 지 100년이 넘는 등대가 서 있다. 가덕도 등대에 오르면 투명하고 푸른 바다와 파도가 부서지는 기암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가덕도등대는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다리가 부산과 거제도를 잇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부산에서도 남쪽 끝에 있어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군부대 검문소 두 곳을 지나야 한다. 물론 방문하기 일주일 전쯤 허가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가덕도등대는 방문객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등대를 향해가는 길에서는 아름다운 해안 풍경이 펼쳐지고 고즈넉한 포구와 마을이 마음을 넉넉하게 한다. 또 등대와 주변은 아름답고 평화롭기 때문이다. 등대와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다른 등대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색다른 체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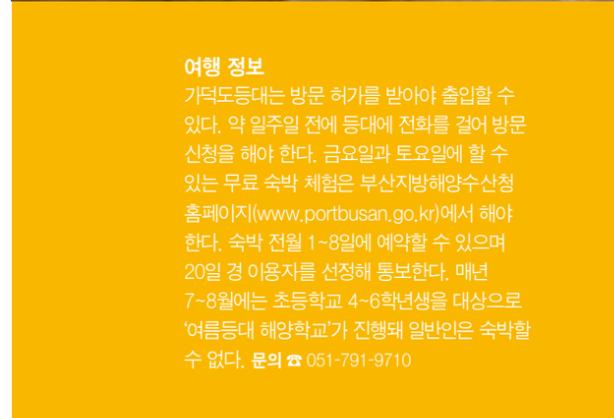
가덕도에 진입해 조용하고 평화로운 대항마을과 외양포마을을 차례로 지난 뒤 가파른 언덕을 올라 구불구불 좁은 산길을 10여분 정도 달리자 철망 문이 가로막는다. 위병소에서 출입 허가를 확인하고 다시 나무 그늘 시원스런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10여분 가자 또다시 철조망이 막아선다. 신원을 확인하고 주의사항을 들은 후에야 마침내 철망 문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가덕도등대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하는 길이었다.

오얏꽃 문양 새겨진 옛 등대

장병 생활관을 오른쪽으로 끼고 비탈을 오르자 이내 새하얀 외관이 눈부신 등대 두 개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다. 등대는 가덕도의 남쪽 끝자락 가파른 단애 위에서 남쪽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으로는 남해의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작지만 단아하고 기품 있는 옛 등대 앞에서 올라다보자 사각형 단층 위에 세워진 8각형 고딕 양식 등탑이 중세 유럽의 성벽과 망루를 연상시킨다. 1m쯤 돌출돼 있는 목재 현관 상부의 박공지붕 중앙에는 조선 왕실의 상징인 오얏꽃 문양이 새겨져 있다. 나라를 통째로 빼앗길 시기에 자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나마 드러냈다고 한다.

등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왼쪽에는 예전 사무실 공간이 있고, 오른쪽에는 왜식 여담이문이 달린 관사가 있다. 관사에는 다다미가 깔린 방과 오래된 솥단지 놓여 있는 부엌,



여행 정보

가덕도등대는 방문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약 일주일 전에 등대에 전화를 걸어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할 수 있는 무료 숙박 체험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www.portbusan.go.kr)에서 해야 한다. 숙박 전월 1~8일에 예약할 수 있으며 20일 경 이용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매년 7~8월에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름등대 해양학교'가 진행돼 일반인은 숙박할 수 없다. 문의 ☎ 051-791-9710

대형 가마솥 육조가 있는 욕실 등이 있어 옛 등대원과 가족의 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우리 전통과 일본식이 혼합돼 있는 구조라는 것이 흥미롭다.

건물 중앙 철제 층계를 오르면 등탑이다. 층계를 오른 후 사다리를 통해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좁은 통로를 오르면 이내 등명기가 있는 곳이다. 어떻게 근무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내부가 비좁다. 하지만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시원스럽다.

환상적인 풍광 펼쳐지는 새 등대

2002년부터 불을 밝힌 새 등대는 높이 40.5m로 울산에 있는 화암추 등대(44m)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다. 등명기가 있는 곳까지는 빙글빙글 계단을 턱에 숨이 달도록 올라야 한다. 다리에 알이 뱌 정도로 힘들지만 정상에는 특별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다. 드넓은 쪽빛 바다와 주변의 섬, 기암절벽이 환상적인 풍광을 선사한다.

옛 등대 아래로는 100주년 기념관이 자리한다. 이곳에는 등대기념관과 숙박 체험 숙소가 있다. 등대기념관에는 가덕도 등대에 관한 안내판과 항로표지용 등명기 렌즈들이 있다. 또 가덕도의 역사와 유적, 옛 가덕도 주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생활용품과 집기가 전시돼 있다. 숙소는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커다란 원룸형으로 등대와 하룻밤을 지내며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고즈넉한 외양포마을과 즐거운 송도해변

가덕도등대를 오가는 길에 들르게 되는 외양포마을은 근대사 여행지로 돌아볼 만하다. 작은 집들이 웅기증기 모여 있는 평화로워 보이는 해안 마을은 1904년 러일전쟁 당시 마을 주민을 내쫓고 일본군 사령부가 주둔했던 곳이다. 마을에는 지금도 화약고, 포진지 등 지난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 특히 마을 뒤편 비탈길을 오르면 포진지와 탄약고, 대포소 등 군사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옛 헌병 막사와 장교 사택 등을 수리해 살아가고 있다. 마을 전체가 해군 소유여서 집을 새로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덕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등대 여행을 마무리 할 장소로는 송도해수욕장이 있다. 이곳에는 지난해 설치돼 새 명물로 탄생한 구름 산책로가 있다. 길이 104m 매끈한 굴곡의 구름 산책로 바닥에는 중간 중간 강화유리와 철망 구조물이 있어 바닷물이 출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산책로 끝에서는 작은 등대와 바다를 떠다니는 배, 해변을 감상할 수 있다.

1 가덕도 옛 등대와 새 등대. 2 옛 등대로 오르는 사다리. 3 새 등대의 등롱에서는 시원스런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4 외양포마을의 일본군 포진지. 5 가덕도 등대기념관. 6 송도해수욕장 구름 산책로 중간에 있는 거북바위 풍경.

송림과 기암이 이룬 수려한 풍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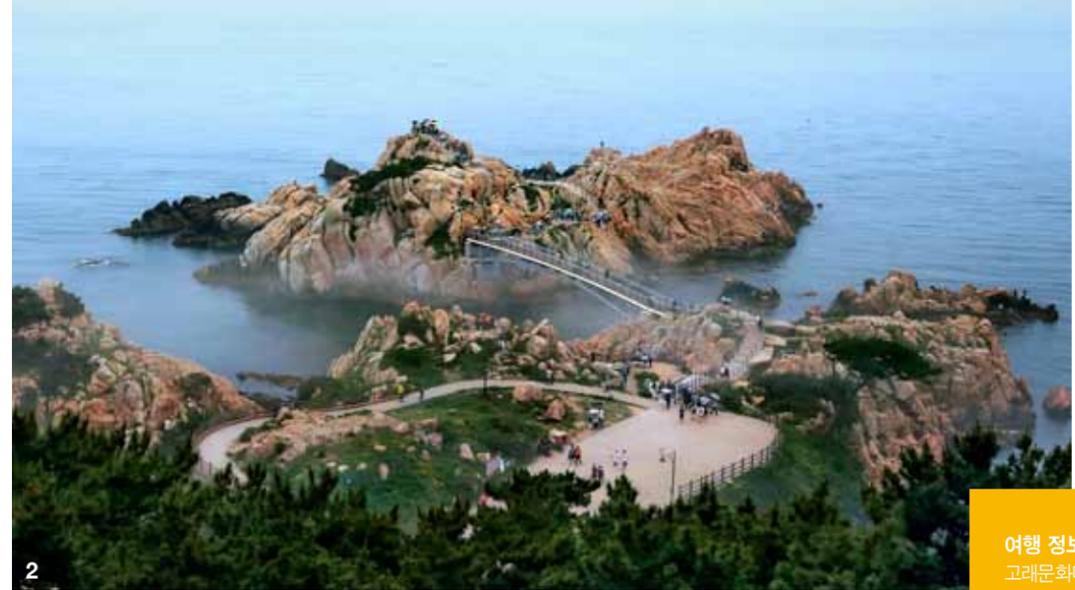
울산의 명소 대왕암 공원에는 동해안 최초로 건축된 울기등대가 있다. 아름답디 소나무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바닷가에는 기묘한 바위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 풍경 감상과 산책을 즐기며 둘러보기 좋다.

울산 동쪽 끝자락의 대왕암공원 일대는 조선 시대에 말을 기르던 목장이었다. 하지만 러일전쟁 때 동해에서 러시아 발트 함대를 침몰시킨 일제는 목장을 없애고 이곳에 해군 부대를 주둔시켰다. 1905년을 전후해 한반도 곳곳에 등대를 세운 일제는 1906년 이곳에도 동해안 최초의 등대를 세웠다. 주변에는 군사기지를 숨기기 위해 해송림 1만5천 그루를 심었다. 하지만 이후 소나무가 웃자라며 등대 운용에 문제가 됐다. 등대의 높이가 6.1m에 불과해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매번 소나무를 자르는 것도 어려웠다. 1972년 3.1m 더 높게 증축하기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1987년 기존 등대에서 50m 떨어진 곳에 높이 24.79m의 새 등대를 세웠다.

울창한 송림 속에 자리한 등대

휴일을 맞아 대왕암 공원에서 주차하려는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다. 주차장에서 발걸음을 얼마 옮기지 않아 커다란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산책길이 시작된다. 일제가 군사용으로 심었던 소나무가 지금은 울산의 명물이 됐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600m쯤 걸어가자 왼쪽으로 등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자그만 옛 등대 뒤로 늘씬한 새 등대가 나란히 보인다. 옛 등대는 팔각형 3층 구조로 층마다 바깥으로 난간이 빙 둘러 있다. 새 등대도 옛 등대의 건축양식을 본 따 팔각형이다. 키는 다르지만 겉모습이 비슷해



2



3



4

여행 정보

고래문화마을(☎ 052-226-0980)은 장생포 옛 마을(1천원)을 제외한 모든 곳이 무료이다. 고래박물관(☎ 052-256-6301) 입장료는 어른 2천원, 청소년 1천500원, 어린이 1천원이며, 고래생태체험관은 어른 5천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 3천원이다.



형제쯤으로 보인다. 옛 등대 현관은 돌출한 포치(porch) 양식이다. 상단에는 '蔚氣燈臺'(울기등대)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 문 안쪽에는 난간이 멋스러운 가파른 계단이 등탑으로 이어져 있었다. 아래쪽에 있는 새 등대로 가는 길에는 등대, 대왕암 공원, 바다를 소재로 쓴 시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빙글 도는 계단을 따라 등대 꼭대기에 오르지 하얀 파도 부서지는 황금빛 대왕암이 발아래 펼쳐진다. 세찬 바람에 안개마저 지나가 신비로움을 더한다. 새 등대 옆으로는 얼마 전까지 사용되다 퇴역한 '에어 사이렌'(음파 표지) 장치가 전시돼 있다. 울기등대에는 영상체험관도 있다. 울기등대와 대왕암 바위의 전설에 관한 4D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고, 울산항 주요 항로를 직접 조타해볼 수 있는 선박조정 체험관도 있다. 울기등대에서는 방학을 맞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룻밤을 보내며 등대를 체험하는 행사도 7~8월에 진행하고 있다.

고래를 보고 만지고 함께 놀다

울산에서는 고래가 빠질 수 없다. 울기등대에서 멀지 않은, 우리나라 최대 포경전진기지였던 장생포에는 고래문화마을이 조성돼 있고, 고래박물관과 고래생태체험관이 있다. 고래문화마을에는 장생포 옛 마을이 조성돼 있다. 고래해체장과 착유장, 학교와 이발소, 사진관, 방앗간 등 1960~1970년대 장생포의 풍경을 옛날 교복을 입고 돌아볼 수 있다. 실물 크기 고래를 형상화한 고래조각정원, 반구대 암각화를 새겨 놓은 선사시대 고래미당, 고래광장, 고래이야기길 등 고래와 관련된 시설도 산책로를 따라 조성돼 있다. 고래문화마을 맞은편에는 장생포고래박물관과 고래생태체험관이 있다. 장생포고래박물관에서는 브라이드 고래의 실제 골격과 수염, 귀신고래 실물 모형 등 고래와 관련된 흥미로운 것들이 전시돼 있다. 고래생태체험관 해저터널에서는 활기차게 유행하는 돌고래를 관찰하고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하루 세 차례 마련되는 고래생태설명회에서는 사육사의 설명과 함께 돌고래가 먹이를 먹고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5



6

1 울기등대 신 등탑의 내부 계단. 2 새 등탑 꼭대기에서는 대왕암의 전경이 펼쳐진다. 3 옛 등탑 뒤로 새 등탑이 보인다. 4 선박 조정 체험관. 5 고래문화마을의 장생포 옛 마을. 6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탑과 달리 내부에는 콘크리트 계단이 놓여 있다. 일반인은 등롱(燈籠) 바로 아래 전망대까지만 갈 수 있다. 원형 전망대를 한 바퀴 돌면 바다와 항구, 눈골 마을이 시원스럽게 내려다보인다. 등대 1층에는 목호등대 야경이 담긴 엽서가 비치돼 있다. 엽서를 작성해 등대 앞 우체통에 넣으면 1년 후 받아볼 수 있다.

꼬불꼬불 흥겨운 벽화마을길

등대 아래 비탈에는 벽화와 조형물로 치장된 '등대오름길'과 '눈골담' 1·2·3 길이 있다. 눈골은 목호항이 명태와 오징어잡이로 호황을 누리던 시절, 아녀자와 노인들이 오징어를 만국기처럼 걸어두고 말리던 동네였다. '개도 돈을 입에 물고 다녔다'던 비탈 동네는 대규모 덕장과 건조공장이 들어서며 차츰차츰 쇠퇴해갔다. 하지만 예쁜 벽화로 골목이 치장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명소가 됐다.

등대오름길에는 등대와 관련된 시와 글귀, 그림이 있고,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여주인공이 살던 집도 있다. 다른 길에서는 햇볕에 말리가는 오징어, 대왕문어를 파는 아주머니들, 지폐를 물고 있는 개 등 미소를 짓게 하는 그림들을 볼 수 있다. 비탈길에는 전망 좋은 카페와 기념품점도 있어 쉬어가기 좋다.

최근 이곳에는 문화센터와 식당, 카페, 상회, 게스트하우스 5동이 있는 감성 마을이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운영하는 곳으로 항구와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해 목호등대를 방문하는 길에 들러 시간을 보내기 좋다. 특히 동해 바다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카디란 창이나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1박당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등대공원 바로 아래로는 바다를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한적한 산책로가 이어진다. 비탈 아래 출렁다리에서는 드라마 '찬란한 유산'도 촬영됐다. ⑤

목호등대

시심(詩心)을 부르는 낭만적인 풍경

목호등대는 동해와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해발 67m 동문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다. 벽화로 유명한 언덕 마을인 눈골과 각종 해산물이 유혹하는 목호항 어시장이 있어 사시사철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목호등대는 1963년 6월 8일 건립됐다. 100년 넘는 등대들이 즐비한 가운데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한다. 하지만 어떤 등대보다 사람들의 방문이 많다. 이렇듯 아예 '목호등대해양문화공간'이다. 등대가 있는 곳을 문화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고, 주변으로 벽화마을과 목호항 어시장 등 명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르썩, 차……르썩, 척, 썩……아". 목호등대해양문화공간으로 들어서면 최남선의 시 '해에게서 소녀에게'가 벽면을 한 가득 채우고 있다. 방파제 끝에 선 등대가 거대한 파도에 부딪히는 듯 느껴진다. 한쪽에는 한국 등대 100주년 공모 작품전에서 선보인 작품들이 걸려 있다. 송유미 시인은 "나의 등대는/ 떠난 길을 비출 뿐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읊고, 김대한 시인은 "등대지기 아저씨는 오솔쟁이/ 지팡이로 달님을 따다/ 탑 위에 걸어두지요"라고 노래한다. 등대에 관한 심상이 시인마다 달라 흥미하는 맛이 좋다.

맞은편에는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 촬영지를 알려주는 기념비가 서 있다. 옆으로는 '피랑주의보', '인어공주' 등 바다와 등대가 등장하는 영화의 장면들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앙에 하얀 등대가 우뚝 솟아 있다.

등대 1층의 디지털 방명록 앞에서 사진을 찍고 계단을 통해 등대를 오른다. 높이는 12m, 2층 구조로 그다지 힘들지 않다. 벽돌로 등탑을 세우고 철제 층계가 있는 100여년 전 등



- 1, 2 등대오름길의 벽화.
- 3 목호등대 아래 산책로에는 드라마 '찬란한 유산'을 찍은 출렁다리가 있다.
- 4 벽화와 조형물로 장식된 눈골 벽화마을.
- 5 목호등대.
- 6 문화센터와 식당, 카페,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감성마을.